

■ 지금 여기 ■

보이지 않는 난민, 보이는 야시카

염운옥

지난 2014년 4월 3일, 영국에서 야시카 바기라티(Yashika Bageerathi, 19세)라는 소녀와 가족이 모리셔스로 추방당했다. 야시카의 가족은 친척의 폭력을 피해 2012년 모리셔스에서 망명한 난민(refugee)이다. 이번 조치로 영국 정부는 고국의 폭력을 피해 망명을 요청한 모리셔스 난민에 대해 추방명령을 실행해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에 휘말리고 있다. 3월말 내무부는 영국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모리셔스 출신의 소우바가와티 바기라티(Sowbhagyawatee Bageerathi, 38세)의 체류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이로써 그녀는 두 딸 및 아들과 함께 무서운 폭력이 기다리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였다. 바기라티와 세 자녀는 서로 떨어지는 일 없이 폭력의 위협이 없는 영국에서 계속 살기를 간절히 희망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런던에서 학교에 다니는 19세의 장녀 야시카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영국 내무부가 본국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 악몽은 시작됐다.

야시카는 송환 결정에 맞서 법정 투쟁을 벌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에이레벨(A Level) 테스트라도 마칠 수 있도록 송환을 연기해 달라고 간청했다. 야시카가 다니는 런던 오아시스 아카데미 헤이들리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송환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져 175,000여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여당인 보수당의 데이비드 버로우스 의원과 노동당 소속 데이비드 헨선 의원 등도 정부에 대해 송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각계에서 쏟아진

탄원에 브리티시에어가 25일로 예정된 강제송환 수속을 반려하면서 추방 집행이 미뤄져 잠시 기뻐했지만, 내무부는 야시카에 이어 나머지 가족에 대한 체류자격마저 박탈해 이번에는 온 가족이 강제 송환될 상황에 몰렸다. 결국 야시카의 가족은 모리셔스로 돌아가야 했다.



<야시카 바기라티 (오른쪽)>



<야시카를 위한 청원운동>

난민이란 누구인가? 난민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인종적 이유 등으로 다양하며,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수는 2,59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새로 증가한 난민만도 4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876,100명의 난민이 전 세계 각국에서 망명신청을 한 상태이다.

야시카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난민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엄연히 존재하지만 관심 밖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난민 문제는 대중과 미디어의 주목을 그리 끌지 못하는 이슈였다. 1990년대 메이저 정권은 난민법 제정을 통해 ‘적절한 수’의 난민만을 허용하는 정책을 표면화했다. 망명 신청자들은 모국에서 박해받고 은신처를 찾아온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찾아 들어온 이주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망명 신청자들을 ‘가짜’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입국 통제를 법제화한다는 발상이었다. 난민을 불법적인 이주를 통해 인종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제공자로 보게 되면서, 난민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어려워졌다.

영국에서 연간 추방당하는 난민은 13,000여명에 이르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청년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협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바기라티 가족이 수용되어 있었던 여성 난민 수용소 얼즈우드(Yarl's Wood) 개선에 대한 청원에는 42,000명이 서명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야시카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미디어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야시카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청원운동을 주도했고, 국회의원과 유명 모델 카라 델레빙네(Cara Delevingne) 등이 청원에 동참하면서 엄격한 이민통제를 주장하는 보수언론 『데일리 메일(Daily Mail)』 까지도 야시카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동정적인 논조를 보였다. 추방 결정이 내려지자 항공사 브리티시에어웨이(British Airways)와 에어몰리셔스(Air Mauritius)는

소동 발생을 우려해 처음에는 탑승을 거부하기도 했다.

난민은 보이지 않지만 야시카는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추방을 막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청원운동에 17만 명이 넘게 서명하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인가능한 희생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도 한몫했다. 익명의 통계 숫자 보다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야시카를 위한 청원운동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로 그녀가 수학에 재능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19세 여학생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시카가 ‘소년’이 아니라 ‘소녀’이며, ‘미혼모’가 아니라 우수한 ‘여학생’이었다. 이런 사실은 추방 반대운동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야시카는 악마화된 난민 이미지에 인간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었고 이 때문에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청원운동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청원운동은 야시카가 추방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에이레벨 테스트를 마칠 때까지 추방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추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야시카의 학습권을 한시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였다. 물론 난민의 상당수는 ‘가짜’ 망명 신청자이거나,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경제적 이주자라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상황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난민, 공부할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청소년 난민이라는 존재는 난민 인식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날이 높아지는 제노포비아를 반박하고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데 야시카 사건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영국 주류 사회는 점점 더 이주민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야시카의 강제송환 역시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작년 9월 개정된 이민법은 영국 사회의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주요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 측에서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이 월세를 얻을 때 집주인이 그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두 조항은 비전문가에게 비자 상태를 확인할 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민자들 상대로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상 추방을 먼저 할 수 있고, 추방 후 다른 3국에서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추방이 선행되면 실제로 법적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고의로 개인을 추방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국제 학생과 같은 임시 이민자들의 경우 NHS(국민의료시스템) 이용을 위해서 2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유학생들도 NHS 이용이 무료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을 이용해 정부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 이민법에 대해 유엔난민기구는 이 법이 인종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영국의 이민법 개정안이 '인종 프로파일링' 분위기를 조장하고 난민과 망명신청자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셰필드 대학에서는 학생 단체가 이민법 제고를 요청했고 1월말에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셰필드 대학은 영국 대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셰필드대 학생 단체도 대학에서 만난 국제 학생들과 영국 학생들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만나 친구가 되었는지 짧은 설명을 곁들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국제적 우정을 강조하는 창의적인 항의 운동을 전개했다. 이 셀카 찍기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학생들은 영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며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나누고 우정을 키우는 기회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야시카 추방 반대 청원운동이나 셰필드대 학생들의 셀카 찍기 운동 같은 작은 움직임들이 하나씩 모여서 높아만 가는 제노포비아의 파고에 맞설 수 있는 힘으로 결집되기를 기대한다. 야시카 사건은 보이지 않던 난민을 보이게 했다.

건국대, woyeom@hanmail.net